

‘전통 윷놀이 대회’ 공모사업 1위 선정

한국전통문화전당, 문체부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사업’에서... 예산 5000만원 지원받아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전통놀이문화 공모사업에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따르면 지난달 문체부는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사업’ 공모를 실시 전국 54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접수했으며 2차에 걸친 심사 끝에 전당이 제안한 ‘전통 윷놀이 대회’를 1위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사업 심사에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내용의 적합성(40점) ▲기관의 실적 및 역량(30점) ▲사업의 효과성(30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차로 14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2차 PPT 면접심사를 통해 8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당초 선정된 기관에는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전국적으로 접수가 몰리며 최종 8곳으로 압축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통문화전당은 4000만원, 여기에 전북도 지원금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에서는 전당과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4위) 2곳이 선정됐으며 2위에는 시전문화재단, 3위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5위 한국이동국악교육협회, 6위 한밭문화재단이 공동 7위, 7위 YMCA철원평화센터, 8위 피륙 비주얼엔터테인먼트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제안한 전통윷놀이 대회는 패의 유연성과 전략 만



학부모들의 열정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2017 중로학원하늘교육 고교 선택전략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들이 임성호 중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의 강연을 들으며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점이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 전통놀이인 윷놀이에 접해 추억명절이 포함된 8월~9월 중 대회전용 모바일 윷놀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많은 점수를 획득한 32명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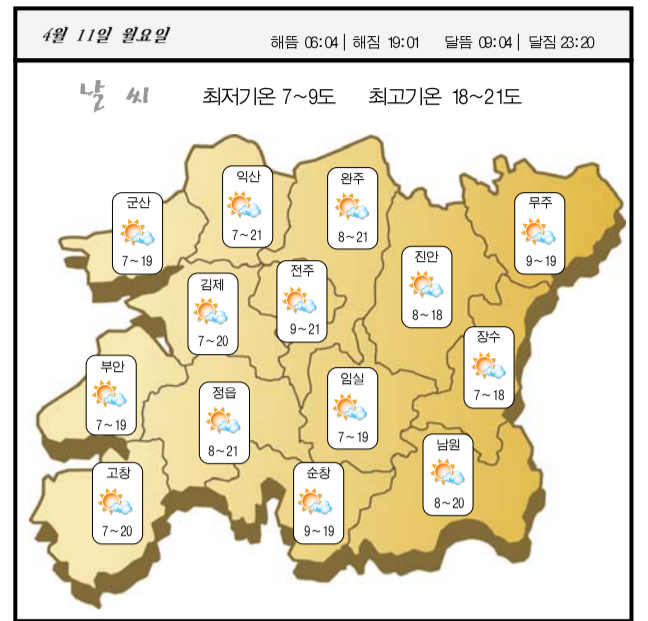
또 1팀 4명으로 구성된 본선 진출자 32팀(128명)은 전당 야외마당에서 이

틀간 16강, 8강, 4강, 결승전 등 토너먼트 방식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될 전망이다.

전당은 전통윷놀이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부대 행사로 전통문화 공연과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동시 개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 발전가능한 축

제로 만들기 위해 전주시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최재덕 사업본부장은 “당초 3억원에서 예산이 줄어 아쉽지만 이후 지속 발전 가능한 축제 말 그대로 전통놀이 문화 조성 확산의 의제를 실현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새만금사업 10대 도전과제’ 발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은 8일 새만금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10대 도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새만금사업 10대 도전과제’는 투자분야의 ▲자금지원 제도 활성화 ▲투자협약(MOU) 체결 기업 입주계약 또는 착공 추진 ▲한중경협단지 사업시행자 투자유치 등이고, 개발분야에는 ▲다시 찾는 새만금 인식제고 및 개발촉진을 위한 선도 사업 발굴 ▲관광용지 사업시행자 투자협약(MOU) 체결 등이다.

또한 기타분야로 ▲2017년도 예산 2016년 대비 30% 증액추진 ▲2016년도 홍보부문 정부업무평가 향상 추진 ▲2016년도 인사혁신수준 향상추진 ▲2016년도 정부업무평가 향상추진 ▲정보보안 관리실제 개선 등이 있다.

‘새만금사업 10대 도전과제’는 투자·개발·예산 분야 등에서 성공확률은 다소 낮으나 성공했을 때 파급효과가 큰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해 과제별 성공·실패 요인을 분석해 시상할 예정이다. /정영수 기자

전북 공무원 채용 설명회 15일 개최

8일 전북도는 투명한 공직채용제도를 도민에게 알리고 시험 준비생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16 전라북도 공무원 채용 설명회를 오는 15일 전 북도청 공영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무원 채용규모가 2013년 580명 수준에서 2015년 1,056명으로 늘어나고, 응시자는 2013년 7,338명에서 2015년 14,236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도민의 관심이 고조된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도가 원하는 비합리적인 공무원 인제상으로 특강이 실시되며, 2016년도 공무원 채용계획과 함께 면접시험의 주요 포인트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 는 공직선배 1:1합격 멘토링을 일반공채 행정직 사회복지직, 기술직 부스와 기술계고 채용 부스, 소방공채 부스 등 직렬별로 8개를 운영해 전년도 합격자와 공직 선배가 수험생들의 공부방법 및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무원시험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모의공무원시험’을 실시해 시험 준비생들의 적응력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시험합격의 영광을 미리 맛보기 위한 ‘합격기원 모의공무원증 촬영’, 심폐소생술 체험 마당을 운영해 다양한 공직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내실 있는 설명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팀(280-4219)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수 기자

한옥마을 식중독 예방 총력

전주시, 식품위생업소 173개소 대상 지도점검·수거검사

전주시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으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식중독 예방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는 본격적인 봄나들이철을 맞아 관광객 식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옥마을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3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한옥마을 내 식품위생업소 17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점검 내용은 △영업장 조리기구 등 위생관리상태 △납은 음식물 재 사용 여부 △유류기판 경과제품 사용

및 사용목적 보관여부 △영업장 및 종사자 등의 개인위생관리(건강진단 등) △호객행위 △기타 준수사항 여부 등이다.

또한 시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칼과 도마, 컵 등 식품조리기구를 수거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식중독 사고가 없는 즐거운 봄철 나들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도, 세계 태권도 대회 성공개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협조 요청

전북도는 2017년 세계 태권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협력을 다지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워크숍을 열고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음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 특강, 시도지사 간의 현안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과 시·도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정보·교환 및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시·도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됐다는 평이다.

이 자리에서 도는 국립태권도원에

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는 점을 홍보하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도는 오는 9월5일부터 9월8일까지 군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 지방정부연합 이태지부 총회(UCLG ASPAC)에 적극적인 참여와 2023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도록 각 시도지사에게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워크숍 둘째날에는 시도지사들이 직접 태권도원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고 태권도진흥재단의 태권도 시범공원을 관람케 하는 등 2017년 세계태권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의 자리를 가졌다.

/정영수 기자

세계 최고 권위 미술랭 그린가이드에서 별 3개(★★★) 만점

봄에도 눈꽃을 볼수 있는 마이산 뱃꽃길로 놀러 오세요!!!